

# 카드사 대출공시 강화... 장기적 금리효과 기대

업계 경쟁유도로 이자 인하 노력 조달비 증가로 단기 효과 없을듯

구간별 평균치, 개인별로 달라 참고자료로 사용하는게 적절

신용카드사대출상품의 공시 항목이 확대됐지만 한동안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시 강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공시 수준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은 각 사별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의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 적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각 사별 조달 금리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차주들이 대출금의 원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주들이 직접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앞다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설명이다. 카드업계 또한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공시 내역이 강화됐다. /뉴시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금리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채권시장 경색에 따라 조달 비용이 커진 탓이다. 지난 12일 기준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연 4.59%다. 올해 1월 이후 최고점이다. 이달만 1.9%포인트(p) 상승했다.

하반기 저신용 차주들이 카드사 대출로 몰린 것 또한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비씨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8조1872억원이

다. 올해 1월(36조6348억원) 대비 4.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4148억원으로 482억원 상승했다.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중신용차주 확보에 나서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차주들이 카드사로 눈길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자금조달 조건이나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릴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비교에 의한 인하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카드사로 대출이 집중될 우려도 등장한다. 각 사별로 조달 조건이 달라서다. 신용등급이 낮은

카드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한다. 같은 조건이라도 금리를 낮출 여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현재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는 AA+(안정적)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이어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은 AA(안정적) 등급이며 롯데카드는 AA-(안정적) 등급으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 이달 12일 기준 AA+와 AA-등급의 여전채 금리차는 0.34%포인트(p)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는 만큼 금리 공시가 참고자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주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뿐 아니라 고정 수입, 대출 유무,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반기 카드업계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조달 부담이 큰 롯데카드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치를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카드 News

신한카드

### 신한플레이 디스커버 포인트적립 미션 행사

신한카드가 포인트 추가 적립 행사를 마련했다.

#### ◆ 월간 미션 달성 시 추가 적립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의 콘텐츠 페이지 ‘디스커버’에서 포인트를 모으는 서비스인 ‘미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디스커버에 방문해 출석 체크와 콘텐츠를 읽으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금 열쇠를 찾을 때마다 최대 20포인트를 적립한다. 월간 30번 이상 완료하면 최대 2000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번달에는 참여일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포인트를 최대 3배까지 추가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KB국민카드

### 천고마비 계절 맞아 도서할인·포인트 혜택

KB국민카드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을 맞아 행사를 진행한다.

#### ◆ ‘독서의 계절’ 가을 맞이 행사

KB국민카드는 가을을 맞아 도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3 ▲인터파크도서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KB페이를 활용해 책을 구매하면 즉시 할인 혜택 및 청구할인,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을 제공한다.

행사는 오는 30일까지다.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KB페이를 사용하면 각각 3000원, 2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어 예스24에는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인터파크도서와 알라딘에서는 결제 금액의 3%를 청구할인한다.

NH농협카드

### 가맹점 분석 고도화 소상공인 상생 서비스

NH농협카드가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 ◆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 지원

NH농협카드는 ‘가맹점 매출·상권 분석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통합매출현황 데이터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맹점 주변 상권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함께 제공한다.

일별·월별 입금액, 매출액, 수수료 등을 달력 형태로 보여준다. 특정기간의 매출성과와 성장추세를 그림으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다. /김정산 기자

# 은행 판단 맡긴 ‘50년 주담대’... 가이드라인 없어 난감

‘문제시 은행 책임전가 의도’ 지적 은행聯 통해 공동기준 마련 추진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규제에 나섰다. 다만 상환 능력에 대한 예외사항을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판단에 맡기면서 앞으로 은행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축소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

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총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한도를 40%(은행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DSR 범위를 정할 때 ‘2개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금액을 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40년 만기로 제한한다.

문제는 상환능력 기준을 당국이 제

시하지 않고 은행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빙 소득 이외에도 미래소득, 기대수명, 직군, 은퇴 시점 등의 변수들을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의 변수를 예측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가이드라인 없이 어떻게 가능하지 모르겠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시 은행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

맞춰 작년엔 40년 만기 주담대, 올해 초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담대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원인으로 꼽았고 은행들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은행들은 ‘은행책임론’이 나오지 않게 관련 기준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서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로 금융당국의 비판을 받기 싫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도이치은행, 韓 1.5억 유로 자본금 증자

안정적 韓 금융시장에 투자 확대 이복현 금융위원장 ‘환영’ 뜻 표해

도이치은행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이복현 원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해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도이치은행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한국 경제·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對) 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글로벌 최고 은행 중 하나인 도이치은행의 증자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증자가 글로벌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화생명, 비대면 온라인 저축보험 확대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MZ세대 겨냥 다이렉트 채널 도입

한화생명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채널 확대에 나선다.

한화생명은 지난 8월 출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까지 판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MZ세대라는 가입대상 특성 상 디지털·비대면 유입이 많을 것이라 예상해 다이렉트 채널까지 판매를 확대했다.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9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월보험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납입으로 매월 최대 7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9월 중 한화생명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상품권’을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성윤호 한화생명 팀장은 “이제는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